



지난달 31일 인천 스카이 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 프리젠티드 바이 SK텔레콤 3라운드 18번홀에서 최나연이 버디 퍼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나연 LPGA 상금랭킹 1위 도약

최나연(23·SK텔레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 프리젠티드 바이 SK텔레콤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자 최나연은 지난달 31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36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 69타를 쳤다.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적어낸 최나연은 챔피언십에서 동반플레이어를 펼쳤던 한국계 비키 허스트(미국·8언더파 208타)와 김송희(22·하이트·7언더파 209타)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7월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우승한 뒤 다시 승수를 추가한 최나연은 상금 27만달러를 받아 시즌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섰다. 또 최나연은 올 시즌 한국여자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LPGA 투어에서 2승을 달성했다.

하나은행 챔피언십 2연속 우승  
한국 선수 중 첫 투어 2승 달성  
김송희 3위·신지애 4위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절친한 친구 김송희에 1타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최나연은 4번홀(파4)과 8번홀(파3)에서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을 집어넣으며 차분하게 타수를 줄여나갔다. 김송희는 8번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적어내며 최나연에 2타차로 앞서 2007년 LPGA 투어에 진출한 뒤 88개 대회 만에 우승을 눈앞에 둔 듯했다. 그러나 김송희는 9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이 그린 앞 벙커에 빠지는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해 1타를 잃어

나 10번홀(파4)과 12(파3), 13번홀(파5)에서 잇따라 보기를 쏟아냈다.

김송희가 크게 흔들리는 사이 최나연은 10번홀과 11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2타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12번홀(파3)에서 3m짜리 파퍼트를 놓쳐 1타를 잃었던 최나연은 13번홀에서 바로 버디로 만회하며 타수차를 다시 벌려 나갔다.

최나연은 16번홀(파4) 그린에서 세차례 퍼트를 하는 바람에 1타를 잃었지만 김송희도 함께 보기를 적어냈고 2타차로 따라 붙었던 허스트도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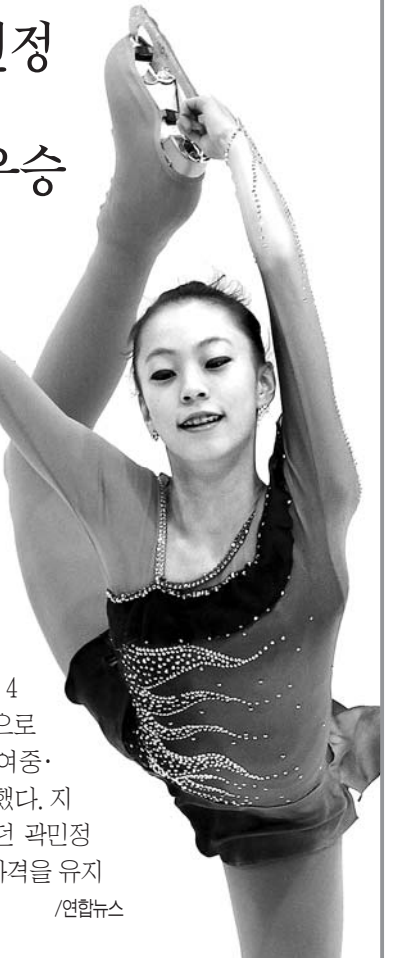
마지막날 3타를 줄인 신지애는 합계 6언더파 210타를 적어내 플라 크리머(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고 위성미(21·나이키골프)는 3언더파 213타를 쳐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한국 피겨의 '새별' 광민정 부상되고 회장배 역전우승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새별' 광민정(16·수리고)이 2010 회장배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부상을 딛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광민정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싱글 1그룹(13세 이상)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42.47점과 예술점수(PCS) 41.72점, 감점 2점 등 합계 81.19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해 4위에 머물렀던 광민정은 합계 점수도 126.20점으로 늘려 박연준(연화중·124.78점)과 이호정(서문여중·124.37점) 등 후배들을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종합선수권대회에서 2위에 그쳤던 광민정은 오랜만에 정상에 오르며 내년에도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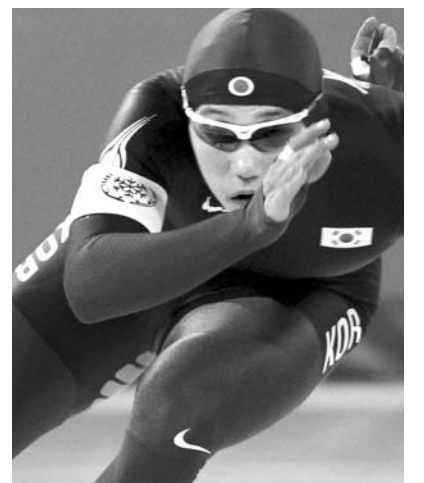
## 모태범 여전히 썩썩 종별선수권 1000m 정상 질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21·한국체대)이 제45회 전국남녀 종목별 선수권대회 1,000m 정상에 올랐다.

모태범은 지난달 3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0m에서 1분09초95 만에 결승선을 통과, 지난해 이규혁(32·서울시청)이 세운 대회 최고기록과 타이틀을 이투며 1위에 올랐다.

모태범과 함께 10조에서 레이스를 펼친 이규혁은 1분10초54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고, 이강석(25·의정부시청)이 1분11초17로 뒤를 이었다.

전날 남자 15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던 모태범은 이로써 두 종목 정상에 오르며 밴쿠버 금메달리스트의 자존심을 세웠다. /연합뉴스



모태범은 29일 열린 남자 500m에서도 2위에 올랐다.

이규혁 역시 전날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1500m를 뛰고도 1000m에서 2위에 오르며 여전히 '대표팀 만능'의 실력을 증명했다.

이어 열린 남자 1만m에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22·한국체대)이 13분43초7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 김경태 日무대 시즌 세번째 우승 사상 첫 한국인 상금왕 눈앞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가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올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태는 지난달 31일 일본 효고현 ABC골프장(파72·7217야드)에서 열린 JGTO 미나미 ABC챔피언십(총상금 1억5000만엔)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했다.

이시카와 료(일본)를 1타 차로 제친 김경태는 우승 상금 3000만 엔을 획득, 시즌 상금을 1억 5026만 5314엔으로 불리며 상금 선두를 굳게 지켰다.

올해 5월 다이아몬드컵과 17일 끝난 일본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김경태는 시즌 3승째를 거두면서 사상 첫 한국인 상금왕을 눈앞에 뒀다. /연합뉴스



##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 광주출신 김민규·김정길 은메달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광주 출신의 김민규·김정길이 은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김민규(33)·김정길(24)은 지난달 31일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휠체어 개인전 TT2와 TT4체급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달 28일 광주 출신의 김영건이 남자 휠체어 오픈전에서 난적 중국의 귀상위안을 제압하고, '깜짝 금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김민규·김정길이 귀중한 은메달을 더하면서 안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광주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08 베이징 패럴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에 빛나는 정은창(TT5)은 노르웨이 토미 우하그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야구 대륙간컵 6위로 마감 일본과 5·6위전서 빈타에 1대2 패

한국이 제17회 대륙간컵 야구대회를 6위로 마감했다. 김정택(상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대만 타이중 두리우 구장에서 열린 일본과 5·6위전에서 타선에서 잇박자가 심해 1-2로 졌다.

이날 일본보다 많은 8개의 안타를 치고 3개의 볼넷을 얻고도 1점밖에 뽑지 못하는 빈공에 시달렸다.

한국은 양 팀이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5회말 선두 타자 최재훈(경찰청)이 볼넷으로 출루한 데 이어 민병현(두산)과 이지영(상무)이 연속 안타를 때려 무사 만루의 찬스를 맞았다.

그러나 이어 나온 정수빈(두산)과 오지환(LG)이 일본의 바뀐 투수 스나가 히데키에게 잇따라 삼진을 당했고, 최주환(상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선취하는 데 그쳤다.

결정적인 기회에서 대량 득점하지 못한 한국은 곧바로 2점을 내주고 역전당했다. /연합뉴스

## 세계 인라인 마라톤 박민용 은메달 추가

박민용(전주생명과학교)이 2010 세계를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마라톤 경기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박민용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각) 룰롬비아 파르네에서 열린 대회 남자 주니어 42km 인라인 마라톤에서 마리오 발렌시아(미국)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23일 E1만50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박민용은 트랙 1000m와 3000m 계주, 로드 5000m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며 3관왕에 올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이상철(대구 경신고)도 계주 포함 금메달 3개를 목에 거는 등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낸 최정민(서울시청)이 이어 메달 집계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학생독립운동 81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 10월 3일) 우리의 개국일인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이 겹친가운데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명칭이 1954년 ‘학생의 날’로 제정된 이후 53년 만인 2006년, 지난날 독립운동이 제대로 평가받기까지 숭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승격되었습니다. 올해로 81주년을 맞이한 11.3학생독립운동을 기념,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제 우리는 제이름을 찾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이름만 찾아오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이름에 걸맞게 예우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일 시** 2010년 11월 7일(일) 오전 9시

**장 소** 광주상무시민공원

**참가종목** 건강걷기(3Km)~

**참가비** 무료

**참가문의** 062)515-8888, 369-1955

※ 참가자에게는 **고급 그린알토에비뉴 1세트 및 간식**을 제공해드립니다.

| 주 최 : CNN21방송 | 행복나눔 실천연대 | 서중·일고55회